

## 현재의 알고리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람들은 알고리즘이 다들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입력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들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내가 두 세번 본 영상이 계속해서 관련영상에 뜨면서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반복하며 뜨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빅데이터가 분석 기록을 토대로 영상을 추천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반복되면서 우리들이 동영상과 사진들을 찾아보게 되는 자기결정권 상실을 유발하기도 한다. 원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정보사회에서의 주도권을 기술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편리하긴 하지만 알고리즘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또한 sns나 포털사이트에 기록들이 축적이 되기 마련이다.

빅데이터로 기업들이 개인정보활용을 통한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항상 가치 있는 서비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정보 수집이 많아질수록 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이 가져올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한 데이터들로 빅데이터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많은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빅데이터를 악용하고 해킹하는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알고리즘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정보를 팔아넘기기도 하였다.

2000년대 sk, 옥션, GS칼텍스 등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2010년대는 네이트, 넥슨, kt, 국민카드 등 사용자의 정보를 팔아넘긴 사례 등이 있다.

최근 코로나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병원에서 환자나, 동선이 겹친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코로나 19로 계기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가 우려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사건들이 많고 피해 받은 사람 또한 매우 많지만 개개인이 보상을 받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

한성대학교에서는 전체공개로 운영되고 있던 게시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경로가 불변명 하여 해당 경찰에서 피해 사실 규명이 어려워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AI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를 한다고 한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의 일부 또한 전부를 변환하는 과정이다.

정보의 일부를 지워 특정 개인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재식별화, 비익명화를 통해서 빅데이터 비식별화한 것을 식별하기 위해 이미 공개된 정보나 보조 데이터와 일치시킬 수 있다. 내 정보는 익명화되어 보이더라도 사용 가능한 다른 데이터와 기초적인 컴퓨터 과학 기법을 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삭제했는데 재식별화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생기고 있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비식별화를 한다고 하여도 재식별화, 비익명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빅데이터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사람들의 외부활동, 활동 장소 분석 등 빅데이터로 통해 알 수 있었고, 코로나 백신 접종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책을 결정하였다.

빅데이터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 현황을 알 수 있었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확진자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면 관련된 논문을 찾는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AI 알고리즘만 1500개 이상으로 코로나19에 관한 백신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많지만 코로나 확진자 판결을 받은 사람과 동선이 겹친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을 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코로나 수기 명부록에 적힌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 발생하였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일상생활에 편리하지만 완벽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사람이 발생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는 없고 알고리즘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된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개인정보를 침해 받는 우려가 있고 기업과 정보의 민간의 정보수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 당하고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개인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할 프라이버시가 정부와 기업들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과, 내용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찾고 검색하여 자기결정권을 상실하지 않고 나의 자결정권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

